



## 한 중 석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부교수

- 198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1989            미국 미시간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수련 및 석사
-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 1993 ~ 2000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 조교수 및 부교수
- 현 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조교수 및 부교수

Provisional restoration은 최종보철물이 장착될 때까지 치관의 보호, 교합안정성, 심미적 지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치아와의 적합도, 형태, 두께, 시간접촉, 교합 등이 점최종보철물과 흡사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적당히 제작하여 기능하기 불편하고 심미적으로 불만족한 임시보철물은 치과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리 쉽다.

또한 보철수복범위가 광범위한 경우나 기존의 교합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환자와의 communication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즉 환자의 적응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환자의 과도한 요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종종 임시치관 제작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여 대충 제작하여 치아이동에 따르는 교합조정 및 장착에 소중한 chair-time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증례가 복잡하거나 신경, 치주 및 교정치료와 병행되는 경우 몇 달에서 1년이상 임시보철물로 기능하게 되므로 정밀하고 강도가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Provisional Restoration은 일상의 보철치료에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Provisional restoration은 진단모형에서 진단 과 치료계획의 수립 후 교합상태, 수복부위, 수복 방법을 정한 후 제작하게 된다. Provisional restoration의 제작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 indirect 제작법이 가장 정밀하고 최종수복물의 형상 및 교합관계를 재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chair-time을 최소로 하면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indirect provisional restoration의 각종 제작법, 임상적용범위, 장점등에 대하여 단일치 수복부터 임플란트 수복까지 임상증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